

##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

홍 경 준(전북대 교수)

### 1. 서론

사회복지 연구자들에게 ‘방법론’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지적 전통과 개인적 경험의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에게 그것이 떠올리는 것은 사회사업의 3대 방법론이라고 칭해지는 개별지도론, 집단지도론, 지역사회조직론 등이다. 그렇다면, 사회과학 일반에서, 혹은 과학 일반에서 방법론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 경우의 방법론은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우선 방법론이란 어떤 지식체계를 과학으로 규정지우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입장들을 말한다<sup>1)</sup>. 그것은 ① 연구하는 대상들의 성격에 관한 가정들과 관련된 존재론적(ontological) 입장, ② 연구방법이나 절차의 논리적 기초와 철학적 바탕을 둘러싼 인식론적(epistemological) 입장, ③ 과학과 가치판단의 관계를 둘러싼 가치론적(axiological) 입장의 쟁점들을 포함한다. 이 세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존재론적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가 인식론적 쟁점이나 가치론적 쟁점까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사회현상을 규칙성을 가진 자연현상과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은 주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조작화와 관찰을 통해 그 현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며, 과학과 가치판단을 가능하면 구분하고자 한다. 반대로 사회현상을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와 해석을 통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한편, 좀 더 제한적인 의미에서 방법론은 특히 인식론적 측면, 즉 과학적 지식 획득의 과정

1) 김경동, 현대사회학의 쟁점, 법문사, 1984.

및 절차의 체계를 말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연구방법이란 바로 이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방법론을 지칭하며, 이 글의 목적은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복지학이 보여왔던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 몇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과제들을 조심스럽게 모색해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록 외국의 경험이긴 하지만, 연구방법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논쟁의 일부 역시 간략하게 소개될 것이다.

## 2. 과학다운 것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에 대한 논쟁들

### 1) 논쟁의 갈래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체계가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연구주제 및 이론체계와 함께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해진다. 이 중에서 특히 연구방법은 어떤 지식체계를 과학으로 규정지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오늘날의 과학철학자들은 어떤 지식체계가 과학의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는 그 지식체계가 어떤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는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sup>2)</sup>. 즉, 어떤 지식체계가 일반화된 지식획득의 과정 및 절차를 따라서 생산되었다면 그것의 연구주제나 이론체계와는 무관하게 그 지식은 과학적 지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적 지식을 특징지우는 과정과 절차, 즉 과학적 연구방법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에 대한 답은 적어도 사회과학의 경우에서라면 매우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 이른바 단일방법의 이상(the Single Method Ideal)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방법과 사회과학의 방법은 동일하며, 따라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반대의 극단에는 자연과학적 현상과 사회과학적 현상은 본질적으로 상이하기에 그 현상들을 인식하는 방법 역시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과학은 나름의 독특한 연구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구방법에 대한 논쟁은 이 양 극단의 연속 선상에 위치한 다양한 관점들에 의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한두마디로 정리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과학 일반의 지배적인 경향은 전자에 더 가깝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현상의 상이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지엽적이며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는 입장이 주류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과학도 과학답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에서 정립

2) D. Nachmias & C. Nachmias,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St. Martin's Press, 1981.

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즉, 사회과학적 지식의 생산은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법칙을 정립하고 그것에서부터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가, 혹은 관찰가능하고 측정가능하도록 개념을 조작화한다는가, 또는 경험적으로 수집, 정리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물론 사실은 가치나 이론과는 구별되는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입장은 대체로 '실증주의'로 불리운다.

한편, 사회과학 내에서는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실증주의에 반대하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인간주의'로 칭할 수 있는 이 입장은 사실 매우 다양한 견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역사는 상당히 긴 편이다. 한 예로 이미 19세기에 독일의 신관념주의 철학자 Dilthey(1833-1911)는 사회현상에 대한 Comte(1798-1857)의 실증주의에 반발하면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그는 자연과학은 '사실'을 다루므로, 인과적 법칙을 수립하는 설명의 형식을 가지지만, 정신과학은 '의미'를 다루므로, 해석과 직관을 통해 의미를 연결지우는 이해의 형식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인간주의의 입장은 1970년대 이후 현상학(phenomenology), 민속학적 방법론(ethnomethodology),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 역사주의(historicism), 비판이론 등 매우 다양한 면모를 통해 발전해왔다. 물론 실증주의를 반대하는 정도나 성격 또한 같지 않아 이들의 입장이 간단히 요약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현상을 관찰자가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은 실증주의와 대비되는 공통적 특성이다. 사회현상을 행위자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이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언어, 행위 등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일차적 목표임을 말한다<sup>3)</sup>.

## 2) 사회복지학 내에서의 논란

외국의 경험을 보면 사회복지학 내에서도 연구방법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00년대에 진행되었던 독일 사회정책학회(Der Verein für Sozialpolitik)내에서의 Weber와 신역사주의 사회정책학자들간의 가치판단 논쟁(Werturteilsstreit)과 미국 사회사업계에서 1980년대 초에 시작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방법론 논쟁은 사회복지학에서도 연구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왔음을 잘 보여준다.

우선 독일 사회정책학회 내에서 진행되었던 가치판단 논쟁은 신역사주의 사회정책학의 규범

3) 최협, "계량적 접근과 질적 접근", 김동일 외,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청람, 1987.

적 특성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Wagner, Schmolter 등에 의해 주도되던 이 학회는 시장메카니즘이 초래하는 구조적 갈등관계를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교정하는 것을 핵심적 목표로 상징했다. 가치판단 논쟁은 그러한 활동이 과연 과학의 이름으로 가능한가에 관한 것이었다. 베버는 여기에서 학문적 고찰의 대상은 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수단들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② 투입된 수단이 의도된 목적 이외의 어떤 부작용을 유발하는가를 분석하는 것 ③ 의도된 목적의 의미에 대한 탐구, 즉 그 목적의 배후에 깔려있는 가치, 혹은 이념들이 무엇이며, 그들 사이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제한된다고 주장했다<sup>4)</sup>. 따라서 명백한 가치선호를 전제한 신역사주의 사회정책학은 경험적 과학의 영역에는 결코 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역사주의 사회정책학에 대한 베버의 비판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그로부터 법률적, 정책적으로 규정된 목표에 대한 정책수단의 적절성과 그 효과를 검토하는 제도적 관점의 전통을 만들어내었다<sup>5)</sup>. 물론 이 논쟁은 가치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된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좁은 의미의 방법론, 즉 연구방법에 대한 논쟁은 아니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회정책학 역시 경험과학의 한 분야로 수렴되어 갔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6)</sup>.

한편, 우리가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는 좁은 의미의 방법론 논쟁, 즉 연구방법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사회사업계에서 진행되었다<sup>7)</sup>. 미국의 사회사업은 발생론적으로 실증주의적 전통에 익숙해있었다. Richmond는 이미 1917년에 사회진단은 과학적 문제해결 방식, 즉 사실에 기초한 가설설정과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역설했고, 이것은 심리분석적 접근이나 행동주의 사회사업, 생태학적 사회사업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보다 명시적으로 사회사업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에 사회사업, 특히 개별지도론의 효과성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이다<sup>8)</sup>.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실천방법들이 개별지도론의 독점적 지위를 넘보기 시작했고, 사회사업 실천의 효과성을 문제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계량화, 실천의

4) M. Weber, "Objectivity in Social Science and Social Policy", E. Shils & H. Finch eds.,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The Free Press, 1949.

5) 독일 사회정책학의 제도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정연택, "한국 노동시장정책: 제도와 평가 그리고 사회복지학의 접근",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 2호, 1997을 참조할 것.

6) 오늘날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핵심적 영역은 베버의 주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산물분석, 이행분석에 미국의 행태주의적인 정책과정 분석을 결합한 3P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

7) 이 논쟁에 대한 국내문헌으로는 문성호, "사회사업실천의 연구방법에 관한 논쟁: 통합적 접근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3호, 1997; 황성철,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 사회사업의 발전",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4호, 1998이 있다.

8) J. Fischer, "Is Casework Effective? A Review", *Social Work*, vol. 18, 1973.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context-independent) 엄정한 연구과정,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결과 등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서 찾으려는 소위 '과학적 사회사업'이 주창된다. 사회사업에서의 방법론 논쟁은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인류학과 사회심리학에서 도입된 인간주의적 방법을 배경으로, 사회사업에서 가르키고, 사용하는 실증주의적 방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sup>9)</sup>. 이들에 따르면, 미국의 사회사업은 양적방법, 실험설계, 객관적 척도, 통계적 분석에 지나친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회과학에서 이미 오래전에 포기된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주의의 입장이 그러하듯이 복잡한 사회현실은 숫자와 개념적 범주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나 의미, 의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사건들에 대한 사려깊은 해석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물론 방법론 논쟁이 그러하듯이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 재비판되면서 실증주의와 인간주의의 다른 입장을 사회사업의 영역 내에서 재생산해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략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사업의 연구방법, 특히 실증주의에 기반한 주류 연구방법에 대한 재검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사회사업 실천에 대한 부적절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윤리성, 주요개념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사회문제에 대한 제한된 이해와 같은 실증주의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은 그것에 경도된 기존의 경향을 반성적으로 회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쟁의 두 번째 기여는 다양한 방법론적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혹은 다원적인 방법론 체계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실증주의적 입장에 있는 많은 학자들조차 실증주의적 연구방법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인간주의적 연구방법에 기울어있는 학자들 역시 과학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증주의 그 자체를 전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들은 실증주의가 제시하는 단일방법의 이상 속에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을 한정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일수도 있다. 이 논쟁의 또 다른 기여는 사회사업의 영역 내에서 질적방법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부각시키면서, 그것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사실 질적방법은 기존의 주류 연구방법의 한 구성요소로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양적방법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차선책(second best)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이 논쟁을 통

9) M. Heieman,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vol. 55, 1981; M. Rein & S. White, "Knowledge for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vol. 55, 1981; H. Krager, "Science, research and social work: who controls the profession?", *Social Work*, vol. 28, 1983; R. Dean & B. Fenby, "Exploring epistemologies: Social work action as a reflection of philosophical assumption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25, no.1 1989 등이 그것이다.

해 질적방법의 사용에 대한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로 실제 주요한 연구방법론 교재에 질적방법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기 시작했고, 몇몇 대학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했으며, 질적방법에 입각한 연구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 3. 어떻게 해왔나? 한국 사회복지학의 성과와 과제 : 1979-1998

한국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이 그간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연구자들에 의해 산출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의 연구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이 글의 연구주제를 다루는데 적합하다. 사회복지학 내에서 산출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모두 망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여기에서는 1979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34호를 발간한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한국사회복지학>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학>은 1979년 창간되어 1987년까지는 연 1회 발간하였고, 1988년부터 1994년까지는 연 2회, 그후 현재까지는 연 3회 발간되는 사회복지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상의 제약과 관련하여 9호(한국사회복지학 제 1집), 10호(한국사회복지학 제 2집) 및 12호에 수록된 논문을 제외한 298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1) 필자 나름의 분류체계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연구방법론상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2) 그것을 토대로 몇가지의 문제점들을 도출해보겠다. 시기의 구분은 발간횟수를 기준으로 1979년~1987년을 1기, 1988년~1994년을 2기, 1995년 이후를 3기로 한다.

#### 1) 분류체계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연구방법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어온 탓에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 역시 필연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연구방법들을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개념적 수준의 논의와 경험적 수준의 논의를 구분한다<sup>10)</sup>. 둘째, 경험적 논의들의 연구방법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구분한다.

---

10) 한편, 현상에 대한 선택적 기술에 입각하여 제언 및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역시 사회복지학의 규범 과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이론적-경험적 논의와 구별하여 제언 및 해설이라는 범주로 구분할 것이다.

우선 이 글은 이론적-개념적 논의와 경험적 논의를 구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험과학의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단계가 맞물려서 진행된다<sup>11)</sup>. 첫 번째의 단계는 순수한 이론적-개념적 수준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이론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단계는 개념을 변수화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의 단계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이론적 논의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사실 이 세가지의 단계는 연구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도식에서는 일종의 순환적 단계로 예시된다. 원론적으로 보아 이들 단계들은 연역과 귀납의 과정을 뒤풀이되면서 순환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연구들 속에서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들은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들은 이론적-개념적 논의에 기반한 경험적 분석에 치중한다. 또 어떤 연구들은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재구성하는 것에 치중하기도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구방법의 문제가 인식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 및 절차를 초점으로 하는 만큼 순수한 이론적, 개념적 연구는 경험적 연구들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택한 두 번째의 분류방식은 경험적 연구들의 연구방법을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 언급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쟁들, 즉 실증주의와 인간주의의 대립으로부터 연유한다. 이들의 논쟁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지만, 연구방법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결국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중 무엇이 사회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더 적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증주의자들에게 있어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므로, 사회과학의 목표 역시 사회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는데에 있고, 그를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조작화, 계량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 수학적 표현 및 통계적 자료 처리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이로부터 양적방법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인간주의자들에게 있어 사회현상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의미의 세계이므로, 조작화와 계량화는 결코 그 세계를 파악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들에 따르면, 의미의 세계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감정이입이나 참여관찰, 심층면접, 해석과 추리와 같은 질적방법이 더 적합하다. 한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질적방법을 주창하

11) 물론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글에서 인간주의 입장으로 구분한 비판이론과 맑스주의 이론은 경험적 세계의 배후에 놓여있는 객관적 본질을 헤겔(Hegel)과 맑스(Marx)로부터 이어받은 변증법적 논리를 통해 파악하려 하기에,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개념적 연구를 또 다른 차원에서 동일하고자 한다.

는 인간주의자들의 입장이 매우 다양한 만큼, 질적방법은 서로 이질적인 몇가지의 하위체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방법을 인류학적 방법, 역사학적 방법 및 기타 질적방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sup>12)</sup>.

또한 이 글에서는 연구방법의 변화양상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구영역이라는 또 다른 분류차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연구영역들이 연구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의 선택적 친화성의 현상<sup>13)</sup>같은 것이 발견되는지 따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분석의 결과 및 해석

연구방법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변화추세; 1979~1998

시 기	개념적 논의	제언 및 해설	양적연구	질적연구			합 계
				인류학	역사학	기타	
1979~1987	37 (52.1)	7 (9.9)	15 (21.1)	2 (2.8)	6 (8.5)	4 (5.6)	71 (100.0)
1988~1994	20 (17.7)	20 (17.7)	54 (47.8)	4 (3.5)	4 (3.5)	11 (9.8)	113 (100.0)
1995~현재	20 (17.5)	13 (17.5)	61 (53.5)	9 (7.9)	3 (2.6)	8 (7.0)	114 (100.0)
합 계	77 (25.8)	40 (13.4)	130 (43.7)	15 (5.0)	13 (4.4)	23 (7.7)	298 (100.0)

주 : ( )은 행의 백분율임.

첫 번째 눈에 띄는 점은 양적방법에 입각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 12) 여기서 말하는 인류학적 방법은 개별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 참여관찰, 구조화되지 않은 인터뷰, 민속학적 방법론 등, 전통적으로 인류학에서 발전해온 연구방법을 지칭한다. 한편 역사학적 방법은 사료에 대한 해석, 거시인과분석, 이론의 유사증명, 맥락의 대조 등을 말하며, 기타 질적 방법은 위의 두가지로 환원되지 않거나 결합한 연구들, 주로 이차적 자료(문서, 영상, 녹음)를 통한 분석을 지칭한다.
- 13)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연구에서는 질적방법이, 사회사업연구에서는 양적방법이 선호되었다는 진술이 발견된다. 오정수, "사회복지학의 통합적 접근", 199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6 및 문성호, 앞의 글. 그에 대한 경험적 검증 역시 이러한 2차원적 분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1979-1987)에 양적 방법을 통해 산출된 연구결과물의 수는 15개로 이 시기에 산출된 연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기(1988-1994)에 오면 54개로 이 시기에 산출된 연구의 48%를, 다시 3기(1995-현재)에는 61개로 이 시기에 산출된 연구의 54%를 차지하게 되었다.

양적방법의 증대를 초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점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첫 번째는 미국 사회사업계의 일반적 추세와 그것으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은 신진 연구자들의 확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사회사업계는 1970년대 초부터 소위 '과학적 사회사업'을 추구하면서 실증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양적방법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신진연구자들의 증가는 그러한 배경에서 양적방법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물론, 양적방법의 확대가 전적으로 그러한 외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복지의 실천영역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도입 등과 같은 몇가지의 계기를 통해 크게 확대된다. 그 과정에서 책임성의 이슈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고, 양적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정당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확산되었다는 점 역시 지적해야 한다. 한편, 한국 사회과학계의 일반적 동향 역시 양적방법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1980년대 한국사회과학을 풍미했던 맑스주의적, 비판적 연구방법론이 사회주의의 몰락과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와 같은 정세변화에 맞물려 퇴조하면서 경험적 현실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세련된 양적방법이 연구되고, 적용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양적방법의 확대경향은 1980년대 말 이후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 사회사업계에서 실증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한국사회과학 내부에서도 최근의 IMF 위기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고는 있지만, 양적방법의 지배적 위상은 위와 같은 요인들과 맞물려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예측 이상의 측면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표 1>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양상 때문이다. <표 1>을 보면, 비록 양적방법을 통해 산출되는 경험적 연구의 비중이 매우 커졌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연구들은 여전히 이론적-개념적 논의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론적-개념적 논의는 지난 20년간 산출된 연구의 25.8%로 양적방법을 적용한 연구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험적 연구는 이론적-개념적 수준의 논의와 순환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원론적 진술을 감안한다면, 그것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

해 보다 진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물들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이론적-개념적 논의가 후속적인 경험연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이론적-개념적 논의가 이론과 개념에 대한 해설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학문의 토착성과 실천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해설적 성격의 논의들은 한국의 경험적 현실에 적용가능하도록 개념화, 가설화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론적-개념적 논의의 의의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표 1>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의 양상은 위의 두 가지 양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질적방법의 최소성이다. 질적방법이 양적방법에 비해 덜 선호된다는 점은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사회복지학의 연구대상이 가지는 속성과 관련하여 질적방법의 확대는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이제는 연구영역이라는 또 다른 차원을 연구방법과 교차시켜서 살펴보자. <표 2>는 분석대상인 연구결과들의 연구방법을 연구영역과 교차하여 분석한 것으로 먼저 제도 및 정책 영역을 살펴보자. 1기의 경우 제도 및 정책 영역에서 산출된 연구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질적방법이다. 한편, 2기에 오면 개념적 논의의 비중이 다시 커지다가 3기에 오면, 개념적 논의와 정책제언 및 정책해설, 그리고 질적방법의 비중이 같아진다. 양적방법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기는 하지만, 여전히 질적방법을 통해 산출된 연구물보다는 그 비중이 작다. 한편, 조직 및 인력 영역은 1기부터 3기까지 일관되게 양적방법이 선호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 조직 및 실천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이 영역에는 양적방법이 적용되어 왔으며, 그러한 전통이 한국에서도 큰 논란없이 수용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사업실천 영역은 1기에 개념적 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2기 이후에는 양적방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양적방법을 익힌 학자들의 학술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상을 기술하거나, 이론을 적용하거나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서 양적방법을 선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일반 영역<sup>14)</sup>의 경우에도 사회사업 실천 영역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왔음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 일반은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인력, 사회사업 실천에 환원되지 않는 사회문제, 교육, 가치, 이념 등을 포괄한다.

<표 2>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연구주제별 변화양상: 1979~1998

시기		제도 및 공공정책	조직 및 인력	사회사업 실천	사회복지 일반	기타	합 계
1	개념적 논의	6 (8.5)	2 (2.8)	17 (23.9)	11 (15.5)	1 (1.4)	37 (52.1)
	제언 및 해설	4 (5.6)	2 (2.8)	0 (0.0)	0 (0.0)	1 (1.4)	7 (9.9)
	양적연구	1 (1.4)	4 (5.6)	3 (4.2)	4 (5.6)	3 (4.2)	15 (21.1)
	질적연구	10 (14.1)	0 (0.0)	2 (2.8)	0 (0.0)	0 (0.0)	12 (16.9)
	인류학적방법	0 (0.0)	0 (0.0)	2 (2.8)	0 (0.0)	0 (0.0)	2 (2.8)
	역사학적방법	6 (8.5)	0 (0.0)	0 (0.0)	0 (0.0)	0 (0.0)	6 (8.5)
	기타질적연구	4 (5.6)	0 (0.0)	0 (0.0)	0 (0.0)	0 (0.0)	4 (5.6)
		21 (29.6)	8 (11.3)	22 (31.0)	15 (21.1)	5 (7.0)	71 (100.0)
2	개념적 논의	11 (9.7)	1 (0.9)	6 (5.3)	1 (0.9)	1 (0.9)	20 (17.7)
	제언 및 해설	10 (8.9)	4 (3.5)	0 (0.0)	3 (2.7)	3 (2.7)	20 (17.7)
	양적연구	7 (6.2)	13 (11.5)	10 (8.9)	20 (17.7)	4 (3.5)	54 (47.8)
	질적연구	8 (7.1)	3 (2.7)	3 (2.7)	5 (4.5)	0 (0.0)	19 (16.7)
	인류학적방법	0 (0.0)	0 (0.0)	3 (2.7)	1 (0.9)	0 (0.0)	4 (3.5)
	역사학적방법	3 (2.7)	0 (0.0)	0 (0.0)	1 (0.9)	0 (0.0)	4 (3.5)
	기타질적연구	5 (4.4)	3 (2.7)	0 (0.0)	3 (2.7)	0 (0.0)	11 (9.7)
		36 (31.9)	21 (18.6)	19 (16.8)	29 (25.7)	8 (7.1)	113 (100.0)
3	개념적 논의	8 (7.0)	3 (2.6)	6 (5.3)	3 (2.6)	0 (0.0)	20 (17.5)
	제언 및 해설	8 (7.0)	1 (0.9)	1 (0.9)	3 (2.6)	0 (0.0)	13 (11.4)
	양적연구	7 (6.1)	15 (13.2)	15 (13.2)	23 (20.2)	1 (0.9)	61 (53.5)
	질적연구	8 (7.0)	5 (4.4)	4 (3.5)			
	인류학적방법	1 (0.9)	2 (1.8)	4 (3.5)	2 (1.8)	0 (0.0)	9 (7.9)
	역사학적방법	2 (1.8)	0 (0.0)	0 (0.0)	1 (0.9)	0 (0.0)	3 (2.6)
	기타질적연구	5 (4.4)	3 (2.6)	0 (0.0)	0 (0.0)	0 (0.0)	8 (7.0)
		31 (27.2)	24 (21.1)	26 (22.8)	32 (28.1)	1 (0.9)	114 (100.0)
합 계	88 (29.5)	53 (17.8)	67 (22.5)	76 (25.5)	14 (4.7)	298 (100.0)	

이상의 분석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도 및 정책 영역에서는 질적방법이 보다 더 선호되어 왔으며, 사회사업 실천 영역에서는 양적방법이 더 선호되어 왔다는 점이다. 요컨대, 우리는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했던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의 선택적 친화라는 현상이 한국에서 존재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제도 및 정책 영역과 사회사업 실천 영역의 도입경로상의 차이이다. 최근의 경우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긴 하지만, 제도 및 정책 영역은 주로 유럽적 전통을 거쳐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사회

사업 실천 영역은 미국의 영향속에서 유입되었다. 질적방법이 유럽에서 더 선호되어왔으며, 양적방법이 미국에서 더 선호되어 왔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도입경로상의 차이가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의 선택적 친화를 초래한 한 원인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책임성의 문제이다. 책임성의 문제는 제도 및 정책영역보다는 사회사업실천이나 조직 및 인력과 같은 직접적 실천 영역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책임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양하지만, 그 하나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방법의 추구이며, 그 과학적 방법은 양적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제도 및 정책 영역보다는 사회사업 실천영역에서 더 컸다는 점이 이러한 선택적 친화를 초래한 또 다른 원인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양적자료의 획득가능성이다.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양적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질적자료를 획득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반면에 사회사업실천 영역의 경우, 실천과정속에서 다양한 양적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했으며, 그 결과가 이러한 선택적 친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 3) 몇가지의 문제에 대한 고찰

지난 20년간 사회복지학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위의 분석에서 보여지듯이 연구물의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 뿐 아니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개념적 논의에 국한된 연구보다는 그것을 경험적 현실과 연계지우려는 시도의 비중이 현저하게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그 점은 확인된다. 하지만, 발전은 항상 더 나은 도약을 위한 과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지난 20년간의 성과속에서, 특히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제기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사실 위의 분석은 몇가지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예비적인 작업일 뿐이다. 그러한 과제를 여기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연구방법의 선택적 편향성, 재검증과 반증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 (1) 연구방법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이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방법론이라는 용어는 사실 실천방법론으로 이해되어온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행은 한국 사회복지학 내에서 연구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의 전무했음을 의미한다.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실

제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나 이론적 모델에 기반하여 연구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익숙함, 또는 시대적 유형에 편승하여 연구방법을 택하게 될 위험성이다. 연구방법이란 말 그대로 연구대상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방법이기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산출해주지는 않는다. 화려한 수학적 모델이나 사례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그에 적합한 연구대상이나 이론체계와 연계될 때만이 그 화려함과 상세함의 빛을 발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보다 잘 알 필요가 있고, 연구대상 및 이론체계와 그것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사회복지학의 주요한 연구영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의 실천적 특성상, 또한 연구방법이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학문과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상 그러한 요구는 다소 무리이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연구방법에 대한 논란은 다분히 이론적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연구방법은 과학의 과학(the Science of Science)에 속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과학철학의 핵심적 주제이기도 하다. 실천적 관심을 위주로 도입되어왔고, 여전히 실천적 관심의 확장을 향후의 중점 과제로 인식하는 분위기<sup>15)</sup> 속에서 연구방법을 또 하나의 연구영역으로 포함시키라는 요구는 다분히 비현실적이다. 더욱이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은 어떤 특정 분과학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방법론적 다원주의의 확산은 분과학문에 기반한 연구방법의 경계를 무너뜨린지 이미 오래다. 요컨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개발된 연구방법들은 사회복지학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작업은 실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회복지학보다는 연구방법에 대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분과학문들에서 훨씬 더 잘 수행될 수 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관심이란 과학철학 및 다른 사회과학에서 논의되고 개발되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회복지학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학은 종합과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인접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체계들을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해왔다. 연구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양한 분과학문들에서 개발되고, 수정되고 있는 여러 연구방법들을 자신의 연구주제, 이론체계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컨대,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려는 시도보다는 체계화되어 있는, 혹은 개발중인 연구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이 우리에게게는 요구된다.

15) 1995년에 수행된 대학협의회 회원학교의 전임교수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95명의 응답자 중 58.9%인 56명의 교수들이 사회복지학의 중점과제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법의 개발과 현장분석' 이라고 답했다. 최균,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1995.

## (2) 연구방법의 선택적 편향성

앞의 분석에서 확인된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의 선택적 친화의 현상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 및 정책 영역에도 양적방법은 잘 적용될 수 있으며, 질적방법을 통해서도 사회사업 실천 영역의 연구물들은 얼마든지 산출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 보여지는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의 선택적 친화성은 선택적 편향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사회사업계에서 진행된 논쟁에서 보여지듯이 사회사업실천의 영역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상황이나 클라이언트와 사회사업가의 관계 등은 양적방법보다는 질적방법에 의해 더 잘 인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 수도 있다. 연구방법에 대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측면은 쉽게 눈에 띄어질 수 있고, 그 결과로 질적방법은 좀 더 많은 비중을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제도 및 정책의 영역에서도 어떤 부분은 질적방법보다는 양적방법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파악될 수 있다.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작은 사례(small number of cases)'의 문제나 개개의 연구대상(개별 국가들, 시대들)이 가진 복잡한 역사와 독특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양적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의 효과들은 양적방법에 기초해서 개발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결국,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구방법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매개로 자신이 선택한 연구대상이나 이론체계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의 유용성과 한계가 판단될 때, 한국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은 보다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며, 그에 기초한 사회복지학 이론의 개발과 효과적인 실천방법의 모색 역시 보다 빈번해질 수 있을 것이다.

## (3) 재검증과 반증의 결어

사회복지학의 토착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학계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토착화를 위한 여러 가지의 과제가 제시된 바 있지만, 연구방법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그것은 결국 경험적 지식에 대한 재검증과 반증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학문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주관성에 기초한 재검증과 반증을 통해 경험적 사실을 객관적 사실로 변화시키며, 그에 기초해 이론을 발전시킨다는 점이다<sup>16)</sup>. 요컨대, 한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이론과 연구방법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재검증, 혹은 반증되는 일종의 나선형적 구조 속

16) D. Nachmias & C. Nachmias, 앞의 책.

에서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체계나 실천모델은 개발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 산출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과 개념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거나, 그것들을 경험적 차원에서 일회적으로 검증해보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요컨대,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별적인 수준에서 개념들을 소개하거나, 그 개념들의 효과를 경험적 세계에서 색출하는 데만 성공할 뿐, 그 이상의 이론적 기여에는 실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학문체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논쟁의 결여'와 '이론의 부재'는 이러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검증된 실천모델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 반복적용되면서 효과성 있는 실천모델로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론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이 이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결국,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연구방법은 그 고유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4. 무엇을 해야하나? : 몇가지의 예시를 중심으로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의 문제점, 즉 연구방법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연구방법의 선택적 편향성, 재검증과 반증의 결여라는 측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잘 지적해준다. 연구방법에 대한 보다 진전된 관심,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물을 산출하려는 노력, 이론과 실천모델의 개발을 위한 재검증과 반증작업에의 참여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연구방법은 연구대상 및 이론체계와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선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차원의 것이다. 사실 위의 세가지 과제는 이러한 상식에 기반할 때 보다 잘 추구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상식에 기반해서 사회복지학에서 사용할만한 몇가지의 연구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질적방법의 경우 ; 현실기반이론(grounded theory)<sup>17)</sup>

사회복지학의 연구대상이 양적방법을 통해 연구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몇가지의 과제가 있다. 미국 사회사업계에서 진행된 논쟁을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지적했지만, 양적방법은 사회사

17) 이 방법은 Glaser & Strauss의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1967에서 비롯된다. 이 방법의 활용에 대해서는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 1994 등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다양한 서적들을 참조할 것.

업 현장에서 중요시되는 이슈들보다는 주변적인 이슈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유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직화가 가능하기에 방법론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제의 사회사업실천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경험적 사실이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더 중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회사업 실천에서 중요시되는 개인의 역동성, 또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측면 등은 조직화될 수 없고, 관찰될 수 없는 한 양적방법을 택한 연구자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연구와 실천 사이에 갈수록 커지는 괴리이다. 양적방법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어쩌면 이미 심각하게 나타나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방법론 논쟁에서 질적방법을 주창한 사람들의 견해가 그러했듯이 질적방법은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복지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한국적 적합성을 가진 이론과 실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 서구에서 생산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재검증과 반증의 과정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이론체계를 산출하는 차원까지 이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중시할 경우, 현실기반이론이라는 질적방법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기반이론은 연구와 실천의 괴리라는 문제와 한국적 적합성을 가진 이론 및 실천모델의 산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현실기반이론이란 쉽게 말한다면, 경험적 현실에 근거해서 이론을 구성함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양적방법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론에서 도출된 개념들간의 관계를 경험적 현실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위주로 진행된다.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연구가 귀납과 연역의 과정을 뒤풀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양적방법의 경우 경험적 현실은 명백하게 이론에 입각해서 연역적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경험적 현실에 대한 관찰은 연구자가 기대고 있는 이론에 의해 행해지며, 이론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경험적 현실들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이 예외적인 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실기반이론의 중요한 가정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현실기반이론은 예외적인 현상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이론을 변경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 즉, 경험적 현실로부터 개념과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중시하는 것이다. 물론 연역적 방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경험적 현실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구성된 개념과 이론적 가정은 또 다른 경험적 현실에 대한 관찰과 대조되는데, 이 과정은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조가 누적적으로 되풀이되면서 개념과 이론적 가정은 지속적으로 수정되며, 그 결과로 현실기반이론은 일단락된다.

예를 들어보자. 기존의 사회사업 이론이나 실천모델이 가진 한계<sup>18)</sup>를 인식한 연구자가 몇가지의 성공적인 개입사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일정한 규칙성, 즉 특정한 개입기법의 효과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연구자는 그 개입기법의 효과를 개념화하고, 그를 토대로 이론, 혹은 실천 모델을 구성하게 된다. 구성된 개념과 이론적 가정은 또 다른 개입사례들에 대한 관찰과 대조되는데, 가설적 이론과 새로운 관찰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실패한 개입사례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실패한 개입사례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앞서의 특정한 개입기법이 이 경우에도 사용되었음을 발견한다면, 구성된 개념과 이론적 가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 사례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또 다른 규칙성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규칙성은 일종의 통제변수로 간주되어 새롭게 개념화되어 구성된 개념과 이론적 가정에 포함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정된 개념과 이론체계는 또 다른 사례들과의 대조과정을 통해 몇가지의 조건들을 추가하게 된다. 예컨대, 사회사업가나 클라이언트의 속성이 또 하나의 통제변수로 추가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여러 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될 수도 있다. 연속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개념들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면서 구성된 이론적 가정속에 통합되며, 이로부터 현실기반이론은 일단락될 수 있다.

제도 및 정책 영역에서도 그것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회정책의 발달에 대한 국가중심적 이론의 형성은 그 한 예이다. 사회정책의 발전을 계급이론이나 권력자원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한 몇몇 학자들은 경험적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사회정책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sup>19)</sup>. 영국과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시기와 배경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근거하여, 그들은 이들 나라의 경우 계급구조나 계급투쟁에서의 차이보다는 국가구조나 국가기구가 가지는 제도적 차이가 사회정책의 발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들은 국가중심적 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구성된 개념과 이론적 가정은 다시 스웨덴과 영국의 경험과 대조되면서, 그 적합성을 재차 확인받게 된다.

현실기반이론은 사회사업 실천에서 중요시되는 경험적 현실들에 기반하여 개념과 이론적 가정을 구축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사업 실천의 또 다른 경험적 현실과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점

18) 예컨대 이론적 탐구대상을 기존의 이론이 잘못 파악하거나, 설명력 있는 개념이 부족하거나,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 불만족스럽거나, 기존이론의 내용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19) A. Orloff & T. Skocpol, "Why not equal protection: Explaining the politics of public social spending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9, 1984; M. Weir & T. Skocpol, "State structures and the possibilities for 'Keynesian' responses to the great depression in Swede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P. Evans et. al.,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차적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연구와 실천의 괴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실천현장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험적 현실에 근거하여 개념의 위상을 변화시키거나,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며,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기에 한국적 적합성을 가진 이론과 실천모델의 산출을 가능케 한다.

## 2) 양적방법의 경우 ; 연줄망분석과 위계선형분석

양적방법 역시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질적방법의 유용성이 점차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양적방법 역시 경험적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방법의 적합성은 연구주제 및 이론체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판단되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학의 연구대상이나 이론체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상황속의 인간(person in situation)'은 사회복지학의 연구대상과 이론체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가정임은 틀림없다. '상황속의 인간'이란 사회복지학이 개인과 환경에 대해 이중적 초점을 두는 학문임을 간단하게 요약해준다. 하지만,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균형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행위(개인)와 구조(환경) 중 어느 것에 더 강조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사회과학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논쟁거리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언급되는 사회사업적 접근과 사회정책적 접근 사이의 원심력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도 두 접근의 구분이 행위와 구조의 딜레마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다<sup>20)</sup>.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연줄망분석(Network Analysis)과 위계선형분석(Hierarchical Linear Analysis)은 이러한 행위와 구조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동시에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학의 기본적 가정에 잘 부합하는 연구방법이기에 연구방법상의 과제와 관련하여 소개될만 하다고 여겨진다.

### (1) 연줄망분석

연줄망 분석은 사회적 실체들(개인, 집단, 조직, 사건 등)의 관계(relation)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sup>21)</sup>. 관계라는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방법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는 속성

20) 오정수, 앞의 글, 1996.

21) 연줄망 분석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참고서적들과 분석에 활용되는 통계패키지는 현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연줄망 분석에 대한 개괄적인 국내의 교재로는 이재열, 연결망분석의 실제, UCINET과 STRUCTURE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6이 있다. 연줄망 분석에 대한 보다

(attribute)이라는 개념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속성은 사회적 실체들이 가지는 내적인 성격으로 이 성격은 흔히 다른 사회적 실체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하지만 관계는 둘 이상의 관찰단위 사이의 연계에서 규정되는 출현적 특성(emergent property)으로, 속성과는 달리 맥락의존적이다. 예컨대 행위자의 수가 달라지면 관계는 변화하며, 개별 행위자 간의 관계 유형이 달라지면 전체의 연결망도 달라진다.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학의 기본가정은 인간을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기본가정에 따르면, 특정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그의 속성을 위주로 이해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사건들, 조직체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양적방법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비록 관계적 측면에서 정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속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유추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개인과 환경에 대한 이중적 초점이 실제의 분석과정에서는 개인이나 환경의 속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국한된다.

연결망 분석에서는 관찰의 초점을 속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두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에 대한 이중적 초점, 혹은 '상황속의 인간'을 사후적 해석이나 유추없이 바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사실 연결망은 사회과학의 어떤 분과학문보다 사회복지학에서 익숙한 개념이다. 1970년대 이후 전통적 사회사업 모델에 대한 비판의 과정에서 도입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면서, 연결망은 환경을 이해하는 분석적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연결망의 개념은 클라이언트가 대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맥락에서 이해되었고, 그 환경에 대한 기술적 연구들 속에서 활용되어왔다<sup>22)</sup>.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방법론상의 제약 때문에 '상황속의 인간'을 특징짓는 다양한 관계적 측면들을 적절하게 기술해내지 못하거나, 그에 기반한 효과적인 개입모델을 구축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연결망 분석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규모(size), 밀도(density), 다중성(multiplexity)과 같은 개념들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연결망의 특성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예컨대, Granovetter의 '약한 연결망의 강력함(the strength of weak tie)'이라는 개념은 규모는 크지만 밀도는 약한 연결망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데 더 유리함을 잘 보여준다<sup>23)</sup>. 한편, 다양한 사례에 대한 비

상세한 논의는 J. Scott,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Sage, 1991 및 S. Wasserman & K.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를 참조할 것. 유용한 통계패키지로는 UCINET과 STRUCTURE가 있다.

22) 오승환, "도시빈민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이원숙,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1992; 권복순,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회관계망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1993등이 그것이다.

교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저성(prominence)이나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과 같은 개념<sup>24)</sup>은 환경에 대한 초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지위나 역할의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파당(clique)의 개념<sup>25)</sup>을 통해 파악되는 사회적 응집성은 지지, 또는 제어되어야 할 환경적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색출하게 해준다. 개입전략의 모색 역시 연출망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한국적 상황 속에서 중시되어야 할 일반사회사업가(generalist social work practitioner)의 개입전략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연출망의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연출망에로의 편입을 피하는 것 등으로 분명하게 묘사될 수 있다.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출망 분석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산출된 연구결과들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sup>26)</sup>. 정책 및 제도 영역에서도 연출망 분석은 유용하다. 최근에 주목을 받는 개념 중의 하나인 정책 연출망(policy network)이라는 개념에 기초할 때, 정책과정은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개인들이나 조직들)의 복잡한 연출망 내에서 출현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연출망 분석은 정책 연출망의 개념과 그 유형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조작화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책과정 및 정책산출을 기술적으로 묘사하거나, 인과적으로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sup>27)</sup>. 또한, 사회정책의 발달에 대한 가설의 하나인 확산이론에 따르면, 사회정책은 국가간의 관계, 혹은 세계체제내에서의 국가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sup>28)</sup> 이 이론의 타당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겨져왔지만, 경제적 개방성이나 국제회의에의 참석횟수와 같은 국가의 속성이 확산에 대한 대리변수(proxy)로 사용되어 왔기에, 척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연출망 분석은 국가들간의 귀속적 연출망(affiliate network)의 구조적 특성이나, 거기에 속한 개별 국가들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개념들을 통해 확산이라는 개념을

23) M. Granovetter, "The Strength of Weak Ties," S. Leinhardt, ed., *Social Networks; A Developing Paradigm*, Academic Press, 1977.

24) 현저성이란, 다른 개인과 맺는 관계속에서 한 개인이 눈에 띄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연계의 방향에 대한 고려여부에 따라 집중도(centrality)와 위신(prestige)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또한 두 행위자가 여타의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가 유사할 경우 두 행위자는 구조적 등위성을 가진다고 말해진다. 즉 구조적 등위성은 관계의 유사성으로부터 계산된 지위와 역할의 유사성 정도를 말한다. Wasserman & Faust, 앞의 책.

25) 연출망 속에서 단절되어 하위집단으로 구획가능한 무리를 파당이라고 한다. Wasserman & Faust, 같은 책.

26) 정순돌, "오스틴 노인그룹 서비스 기관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 31호, 1997 및 이현주,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조직간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은 조직 및 인력 영역에 대한 연출망 분석의 유용성을 잘 보여준다. 조직 및 인력 영역에 대한 연출망 분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27) 이러한 관점에서 연출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로는 D. Knoke & F. Pappi, "Organizational Action Sets in the U.S. and German Labor Policy Domai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6, 1991이 있다.

28) 이에 대해서는 C. Usui,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a world system context," T. Janoski & A. Hicks,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를 참조할 것.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하게 한다.

(2) 위계선형분석

위계선형분석의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맥락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즉 어떤 사회적 실체의 행위는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맥락, 즉 그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상위수준의 사회적 실체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29)</sup>. 이를 개인의 행위에 적용시켜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행위는 그가 가진 개인적 속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상황 속의 인간'인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은 결코 개인의 수준으로 환원불가능하다.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경계를 가진 사회적 맥락(가족, 조직, 지역, 문화적 맥락, 정책적 맥락 등)에 속하게 된다. 가족이나 조직이 다르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칙 또한 달라진다. 지역이나 문화적 맥락이 다르면, 개인의 규범이나 행위양식 또한 편차를 가진다. 연줄망 분석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론적 개인주의, 혹은 방법론적 구조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수용한다. 하지만, 그에 기반하여 실제의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썩 용이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험적 연구들은 단일한 분석수준에서 하위수준의 변수와 상위수준의 변수를 나열한다. 대표적인 예는 소득불평등, 혹은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신구조주의적 접근이다<sup>30)</sup>. 이 접근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인적자본과 같은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기업, 지역, 산업 따위의 조직, 혹은 사회구조 수준의 변수들을 하나의 회귀방정식에 대입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흔히 말해지는 생태학적 오류, 혹은 환원주의의 문제를 가지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즉, 자료가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 회귀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연구결과는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동일한 사회적 맥락 내에 속한 개인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선발효과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맥락안에서의 상호작용 때문일수도 있고, 문화의 탓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독립변수들의 독립성 가정은 지켜질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인적 수준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

29) A. Bryk & S. Raudenbush, *Hierarchical Linear Models*, Sage Publications, 1992. 이 책은 위계선형분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글로는 강상진, 다층모형의 특성과 자료분석방법의 실제: 2-Level Model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Technical Paper #3, 1996이 유용하다. 위계선형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통계 패키지는 HLM이 있다.

30) 신구조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류진석, "도시 저소득가구의 소득결정요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를 참조하라.

계는 그 개인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잔차들은 상호독립적인 무정형의 분포를 보일 수 없다. 즉, 이 잔차들은 감추어진 상위수준의 효과에 의해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분산성의 문제가 초래된다. 결국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들은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결코 불편추정량을 산출할 수 없다.

위계선형분석의 장점은 상위수준의 사회적 실체(예컨대 조직)의 특성을 하위수준의 사회적 실체(예컨대 개인)가 가지는 특성의 함으로 환원하거나, 개인의 행위를 조직의 행위로 치환하지 않으면서도 상위수준의 효과와 하위수준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과학의 어떤 분과학문보다도 사회복지학에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sup>31)</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학은 개인과 환경에 대한 이중적 초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의 속성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속성 때문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청소년의 비행은 그의 개인적 속성이나 가족적 배경 뿐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학교의 특성이나 교육정책의 방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통상적인 양적방법은 학교의 특성이나 거시적인 교육정책의 효과를 개인의 속성에 단순히 부가하기에, 학교의 특성이나 교육정책을 개인수준으로 환원한다. 하지만, 위계선형분석은 청소년의 개인적 속성과 비행과의 관계는 그가 속해있는 학교의 특성이나 교육정책의 특성에 의해 달라짐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한다. 결국 개인의 복지는 그의 내적인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의 함의는 매우 크다.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은 미시적 차원(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임상적 개입) 뿐 아니라 거시적 차원(학교를 변화시키거나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적 개입)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이 연구방법은 잘 보일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방법은 사회복지학의 연구주제와 이론적 가정에 매우 적합하기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다차원적 개입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사회사업적 접근과 사회정책적 접근의 원심력을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줄여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의 목적은 지난 20년간의 한국 사회복지학의 전개과정을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살펴보

31) 적합한 예로 Bong-Joo Lee, "Developing childhood social indicator models: A hierarchical approach",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제 9호, 1997이 있다.

고,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제를 개인적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전통적으로 워낙 다양한 입장들 속에서 논쟁되어온 것이기에, 이 글의 분류방법이나 서술방식, 또는 몇 개의 제안 역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들은 이 글의 명백한 한계이다. 우선, 지난 20년간의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분석의 대상을 <한국사회복지학>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 글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동료는 <한국 사회복지학>에 대한 분석으로 한국 사회복지학계 전체의 연구경향을 짚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한국사회복지학>이 실천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그에 기초한 논의들보다는 일정정도의 체계를 갖춘(?) 연구논문들을 더 선호해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필자는 이론과 실천을 병행해야 하는 사회복지학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이 에피소드의 함의를 이 글의 주제가 연구방법임을 빌미로 외면하였다. 연구방법은 틀림없이 실천보다는 이론지향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실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이론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연구방법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졌기에, 한국사회복지학계에서 가장 큰 (이론적)권위를 가진 <한국사회복지학>에 대한 분석은 그런 한에서 용인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이 글에서 제안한 현실기반이론, 연출망분석, 위계선형분석은 그러한 딜레마에 대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대응전략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방법의 선택이 연구주제 및 이론체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식에 근거해서 선택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제기한 몇가지의 제안 외에도 다양한 연구방법이 소개되고, 활용될 수 있다. 구조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역시 사회복지학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통합한 불리안 분석(Boolean Analysis)은 비교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다양한 연구방법 중에는 틀림없이 여기에서 언급한 것들보다 더 유용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질적방법에 속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검토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의 또 다른 한계이다.

한편,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가능한 단일사례조사와 같은 연구방법의 모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와 관련하여 실천의 기법을 발전시키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미국 사회사업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D&D(intervention Design & development)나, Agency-Based Research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와 교육이 그것을 경험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